

시카고 컵스,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연장 승부 끝 클리블랜드에 8-7 승리 한 세기를 넘겨 '염소의 저주' 깬다

시카고 컵스가 '염소의 저주'를 끊고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컵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8-7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컵스는 시리즈 전적 4승3패로 대망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1907년과 1908년 연속 우승 뒤 3번째 우승을 추가했다. 한 세기를 넘어 무려 108년 만의 우승이다. 컵스는 71년이나 자신들을 괴롭혔던 '염소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4차전까지 1승3패로 베팅 끝에 몰렸던 컵스는 이날 7차전까지 내리 3연승을 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1승3패에서 역전 우승을 거둔 역대 4번째 팀이 됐다. 경기 내용은 더욱 극적이었다. 컵스는 선발 카일 헨드릭스의 호투로 5회까지 5-1로 앞서며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어 승기를 완전히 가져오기 위해 5차

전 선발로 나왔던 존 레스터를 투입했다. 레스터는 5회말 폭투로 2점을 헌납하긴 했지만 8회 투아웃까지 6-3 리드를 지켜냈다. 8회 2사 후 레스터가 네아우타를 허용하자 컵스는 철벽 마무리 아돌프스 챔프먼을 투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기쁨을 부었다. 챔프먼은 브랜든 가이어에게 적시 2루타를 맞고 추격을 허용했다. 이어 라지이 데이비스에게 동점 투런 홈런을 얻어맞았다. '염소의 저주'를 깨고 108년 만에 우승을 목전에 뒀던 컵스는 통탄의 동점을 내주며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됐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컵스의 편이었다. 연장 10회초 1사 1, 2루에서 조브리스트가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다시 앞서 나갔다. 이어 폰테로의 추가 적시타로 8-6까지 달아내며 우승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결국 컵스는 10회말 클리블랜드의 반격을 1점으로 막고 대망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다. 컵스는 지난 1945년 '염소의 저주'에 걸린 뒤 이번 시즌 전까지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 무대조차 밟지 못했다.



시카고 컵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8-7로 승리했다.

당시 월드시리즈 4차전이 열린 리글리 필드에 샘 지아니스라는 관중이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를 데리고 왔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그는 경기장에서 쫓겨나며 "다시는 이곳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후 컵스는 월드시리즈 무대조차 밟지

못했다. 월드시리즈 우승은 1908년 이후 100년 넘게 인연을 맺지 못했다. 반면 88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클리블랜드는 눈 앞에 왔던 우승 트로피를 놓치고 말았다. 3승1패 뒤 5~7차전을 내리 내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 교육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같은 선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12회째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황지영 스포츠전문인력풀강사가 선수들에게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수(성)폭력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체육회는 스포츠인권향상 교육에 만전을 기해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체육회 최영원 스포츠진흥처장은 "스포츠인권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하고 투명한 체육환경을 조성,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올바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주시 योग협회 달의여신, 전국대회 싹쓸이

전주시 योग협회 '달의여신' 팀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안주의 조화, 숙련성을 앞세워 각종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다. 군산에서 개최된 2015 동호안디그왕중왕전의 금상을 시작으로 올해 입실에서 개최된 2016 왕중왕전에서 2연패를 하는가하면 지난달 22일에 열린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에어로빅스체조 경연대회'에서도 58개 팀 가운데 일관된 대상을 차지하며 전라북도의 명예를 높였다. 전주시체육회 홍보성 사무국장은 "전주시 단체(योग)협회가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 깊은 것 같다"며 "앞으로 योग뿐만 아니라 전주시 단체에도 많은 기회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아이유, 12월 3~4일 단독콘서트 '스물네 걸음'

가수 아이유가 분업으로 돌아왔다. 소속사 페이브테이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오는 12월 3~4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16 단독콘서트 - 스물네 걸음: 하나 둘 셋 넷을 펼친다. 아이유는 지난 1일 종영된 SBS TV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로 연기자 이지은의 모습을 선보였다. 올해 신곡 발표는 없었다. 지난해 3년만의 전국투어 콘서트 '챗샷(CHAT-SHIRT)'로 매진행렬을 이어간 아이유는 이번 콘서트로 다시 가수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페이브테이먼트는 "이번 콘서트는 '스물네 걸음: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공연명처럼 스물네 아이유가 지니온 시간을 하나 하나 되돌아보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티켓예매는 오는 10일 오후 8시 멜론티켓을 가능하다.

/뉴시스

'최종전 한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전북현대, 숙적 FC서울과 K리그 마지막 라운드 우승결정전

최종전 한판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전북현대 FC서울과 최종전 준비.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영원한 숙적 FC서울과 K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결정전을 치른다. 6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승 16무 1패 승점67점(득실차 +32)로 1위에 올라있는 전북현대와 20승 7무 10패 승점67점(득실차 +20)으로 2위에 올라있는 우승컵을 건 38라운드 최종전을 치르게 된다. 특설에서 크게 앞서는 전북은 이기거나 비길시 우승을 확정하게 되고 서울은 우승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은 2일 열린 상주전에서 4대1로 크게 승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다만 상주전 선발로 이동국과 김신욱 투입을 내세운 상태로 이재성을 측면에 배치했지만 전반에 큰 재미를 보지 못

했다. 오히려 후반 김신욱을 빼고 로페즈를 투입하며 이재성을 중심으로 이동국과 이동국을 원톱 위치시키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바꾼 후 다득점에 성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최창희 감독은 이번 경기 역시 로페즈-레오나르도를 측면에 배치하고 에두, 김신욱, 이동국 중 한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하는 전술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상주전에서 전반반 쐐기 체력을 보충한 김신욱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 역시 같은 날 열린 전남전을 2대1로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경기는 오히려 서울이 4승 1무로 더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북은 같은 기간 2승 2무 1패에 그쳤다. 이번시즌 양 팀은 리그와 컵을 통틀어 상대전적에서 전북이 4승 1패로 압



도적인 우위에 있으나 1패가 가장 최근에 있던 AFC 4강 2차전에서 나온 패배여서 서울이 전북에 대한 파훼법을 알아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3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려온 경기장에서는 전주성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안방에서 리그 최고 승률을 거

두고 있는 전북을 서울이 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챔피언과 리그우승을 노리는 전북현대와 FA컵 우승과 리그우승을 노리는 FC서울의 가장 중요한 한판승부의 승자가 누가 될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